

2024년 다양성 존중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리더발굴 지원사업

이주여성의 상상력으로  
세상을 바꾸다!

2024년 다양성 존중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리더발굴 지원사업

이주여성의  
상상력으로



세상을  
바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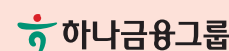


KOREA FOUNDATION FOR WOMEN

주최



후원



지원



2024년 다양성 존중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리더발굴 지원사업

# 이주여성의 상상력으로 세상을 바꾸다!

# 이주여성의 상상력으로 세상을 바꾸다!



## 목차

|     |                                                              |    |
|-----|--------------------------------------------------------------|----|
|     | 2024 이주여성 리더발굴 지원사업 소개                                       | 4  |
| 01. |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br>선량한 사람들의 한계 없는 연대                              | 6  |
| 02. | 미래글로벌 사회적협동조합<br>미래글로벌 리더맘 - 지역사회 다문화 인식개선 향상을 위한 이주여성 강사 양성 | 10 |
| 03. | 사단법인 새한누리<br>나르샤 - 이중언어 그림책 Therapist 양성                     | 14 |
| 04. |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br>이주여성 성평등 교육 강사 양성                            | 18 |
| 05. | 사단법인 함께하는 세상<br>양산이주여성노동인권활동가 - 임파워먼트, 아자!                   | 22 |
|     | 한국여성재단 소개                                                    | 26 |

# 이주여성의 상상력으로 세상을 바꾸다!

다양성 존중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리더발굴 지원사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풀뿌리 활동을 수행하는 이주여성들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주여성 리더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성평등 실현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의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본 사업은 하나금융그룹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전국에 이주여성 리더 발굴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주여성 인권향상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이주민과 선주민 통합,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조성을 위한 활동  
이주여성이 지역사회 활동가로서 성장과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



## 지원사업 내용

### 사업 기간

2024년 7월 ~ 2025년 6월(12개월)

### 사업 대상

전국 이주여성 및 이주여성 지원 단체

### 사업 규모

100,000,000원

### 지원 인원

2,177명

### 지원 내용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성 존중 사회를 위해 풀뿌리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이주여성 리더 발굴

## 지원단체

###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선량한 사람들의 한계 없는 연대, 경남 진주

### 미래글로벌 사회적협동조합

미래글로벌 리더맘 - 지역사회 다문화 인식개선 향상을 위한 이주여성 강사 양성, 전남 나주

### 사단법인 새한누리

나르샤 - 이중언어 그림책 Therapist 양성, 서울

### 사단법인 이주민과함께

이주여성 성평등 교육 강사 양성, 부산

### 사단법인 함께하는세상

양산이주여성노동인권활동가 - 임파워먼트, 아자!



## 01.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는 2011년에 개소한 비영리민간단체로  
한국에 이주해 온 이주배경주민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 성 인지적 관점에서 상담, 교육 및 문화,  
조직 활동을 통한 정착지원, 국경을 넘는 연대를 통하여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동체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선량한 사람들의 한계 없는 연대

#### 사업목표

지역에서 고립되거나 소외된 대상자 발굴로 지역 공동체 참여  
유도 및 다양한 문화가 공동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사회 지지체계 형성



#### 사업내용

- 이주여성 리더 15명 모집 및 역량 강화 교육 실시  
(통역·번역 경험자 포함)
- 지역이주민 가정 10가정 발굴,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연계 지원
- 통영 워크숍 및 중간 평가회 개최, 연계기관 협력 적극 추진
- 선한연대 헌판 및 협약식 10곳 추진, 기관과의 연계 확대
- 쌀국수 데이, 겨울옷 나눔 행사 등 지역사회 행사 추진  
(총 530여 명 참여)
- 지역교회와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하여  
나눔 활동과 지역 유대 강화



#### 사업활동가

이현지(베트남)

#### 사업대상

이주여성 리더 15명, 지역이주민발굴 10명,  
선주민하우스농가 100명, 연대기업 10곳,  
연대사업 530명  
총 665명



#### 사업성과

- 이주여성 리더 15명 중 13명 수료, 리더십 강화 성과 달성
- 지역 이주민 10가정 신규 발굴과 센터 연계로  
지역사회 포용력 확대
- 통영종합복지관 방문을 통해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 환경 구축, 지속적 네트워크 형성
- 선한연대 10기관과의 협력으로 강한 연계체계 구축,  
확장 기대
- 총 665여 명 참여하는 지역사회 행사로  
지역 공동체 결속 강화
- 이주여성 리더 발굴과 역량 강화, 지역사회 통합 기틀 마련







### 사업담당자 활동 소감

이번에 첫 실무를 맡으면서 너무 어려웠다. 함께 공부할 친구들에게 신청을 하라고 전화를 하니 다들 일을 한다고 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어떻게 모으지'라고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한 명의 언니가 일을 하다가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있는데 친구들도 몇 명 있고, 한 번도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는데 가능하냐고 물어보았다. 너무 반가웠다.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와서 15명이 모여 시작했다. 그리고 회계를 해야 하는데 돈을 예산에 맞춰서 잘 사용해야 하고 영수증, 검수사진도 잊어버리면 안되고, 서류도 바로바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산만한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었다. 워크숍을 가는 날 카드결제를 한 주유소에서 영수증과 카드를 두고 왔는데 센터장님 차가 뒤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왔다. 그때 진짜 정신이 없었다. 그래도 자신감이 생겼다.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언니와 센터가 있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언니,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쌀국수, 베트남 요리도 해서 먹고, 자꾸 만나니 더 친해지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서로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언니들과 지역을 위해 봉사단을 꾸리자고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주여성들을 위해 할 일이 많이 생겼고, 이제 내가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보고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현지  
베트남



### 사업참가자 활동 소감

자유시장에서 베트남 야채와 과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 하지 못하고 아이 두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자마자 OO군에 살면서 한 번도 한국어 수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어나면 밭에 가서 일하고 산에 가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베트남에서 보다 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임신을 하고도 산에 가서 밤을 줍다가 배가 아파 내려오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서 진주에 오게 되었고 소송 중에 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소송 중에 남편은 지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후 센터에서 한국어 수업도 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니 다양한 일을 했는데 쌀국수를 판매해 보자고 말해서 몇 년 동안 쌀국수 가게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습니다. 교육은 사치였습니다. 일하기 바빠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재혼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센터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베트남 가족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교육 중 스트레스 해소 교육을 받았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울어주고 다 같이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후 적극적으로 교육을 들었습니다. 통영 워크숍을 가야 하는데 장사도 해야 하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동생들에게 맡기고 휴대폰도 두고 지갑도 두고 맨몸으로 통영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실컷 놀고먹고 이야기도 하고 진짜 너무 행복 했습니다. 선생님이 리더라고 하는데 리더가 뭔지 아무튼 도와주면 된다고 해서 시장에 오는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혼자 해결하기도 하고,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친구들도 있고 센터도 있어 너무 좋아요.



팜티빅따오  
베트남





## 02. 미래글로벌 사회적협동조합

미래글로벌 사회적협동조합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직접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이주여성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은 자신 있는 이중언어 능력과 풍부한 이중문화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다양한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에 기여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미래글로벌 리더맘

#### - 지역사회 다문화 인식개선 향상을 위한 이주여성 강사 양성

##### 사업목표

이주여성 리더 발굴 및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다문화 인식개선  
및 상호문화이해 교육 강사 양성 및 이주여성들 중심으로  
지역사회 다문화 인식개선 및 공동체 인식 향상



##### 사업내용

- 이주여성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5회의 전문성 교육 및 워크숍 진행, 강사 동기 부여 및 역량 향상
- 지역 내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48회에 걸친 문화이해교육 실시, 826명 참여
- 다문화 사회 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나라 문화체험과 공공기관 대상 세계시민 교육 실시
- 이주여성 강사를 중심으로 한 인식개선 활동 및 지역사회 다문화 수용성 제고



##### 사업활동가

다와도로지 아비르메드(몽골)

##### 사업대상

이주여성 강사 15명, 선주민 826명  
총 841명



##### 사업성과

- 이주여성 강사 12명 신규 활동 참여로 지역사회 내 다문화 인식개선 기여
- 강사 역량 강화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참여자 및 기관 만족도 높음(평균 4.8~4.98점), 다문화 이해와 공동체 안정성을 높이며, 지역 내 사회통합에 긍정적 영향 기대
- 이주여성 강사의 강사 활동 경험과 역량 향상으로 인해 미래의 지속적 강사 활동 기반 마련, 강사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지속 기대







### 교육참여자 활동 소감

저는 현재 이중언어 베트남어 강사로 활동하면서 이번에 미래글로벌 리더탐 사업에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요양병원 문화수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강사 역량강화교육부터 시작해서 활동을 이어서 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학습자들과 만나면서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 이상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기에, 이번 사업을 통해 느꼈던 감정과 기억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및 아동센터 수업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베트남어 인사말, 숫자, 사랑 표현 등을 놀이와 노래로 배우며, 베트남 문화 체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수업은 일회성 수업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아이들은 금세 흥미를 보이며 반응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어느새 "Xin chào!" 하며 저를 따라 인사하고, 베트남어 단어를 즐겁게 따라 하는 모습을 보며 언어가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베트남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문화체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베트남 전통 모자인 농라(nón lá)를 직접 써보시고, 아오자이 사진을 함께 보며 베트남의 명절과 의복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다소 낯설어 하셨지만 점차 흥미를 가지시며 이야기에 집중해주셨고, 수업이 끝난 후엔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언어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라는 사실을 실감 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창이 되고, 어르신에게는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통의 매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와 소통 하며, 언어와 문화로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수업을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정혜연  
베트남





## 03. 사단법인 새한누리

2015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과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치유와 성장을 돕는 봉사로 시작하여,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심리상담, 취·창업을 위한 교육지원과 멘토링 사업으로 차세대를 육성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 나르샤

#### - 이종언어 그림책 Therapist 양성

##### 사업목표

이종언어 그림책 Therapy를 통해 다문화,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의 인성 발달을 지원하고, 자국어 그림책 읽기를 통해 자존감 회복 및 한국어 어휘력 향상을 도모하며 아울러 전문 교육과 실습을 통해 그림책 Therapist를 양성



##### 사업활동가

오은정(회계담당, 베트남),  
최옥화(실무담당, 중국)

##### 사업대상

이주여성 그림책 Therapist 10명,  
초등학생 20명  
총 30명



##### 사업내용

- 이종언어 그림책 Therapist 양성 교육과정 운영, 이주여성 대상 심리상담 및 소통 역량 강화
- 그림책을 활용한 자기이해, 공감, 소통 중심의 이론 및 실습 교육 실시
- 다문화 엄마 및 초등학생 대상 그림책 Therapy 진행, 개인 및 그룹별 맞춤형 정서 지원
- 성과보고회 및 워크숍 개최, 활동 공유와 지역사회 내 리더십 발휘 기반 마련
- 교육 → 실습 → 리더 성장의 구조적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 사업성과

- 이주여성 10명, 그림책 Therapist로 신규 활동 참여, 다문화 감수성 확산 및 정서적 돌봄 실천
- 심리상담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강사로서의 역량과 자긍심 향상, 리더로서의 성장 기반 마련
- 가족 및 자녀와의 관계 개선 경험 공유, 공동체 내 정서적 안정과 소통문화 형성에 기여
- 초등학생 대상 그림책 Therapy 운영, 아동의 자존감과 다문화 인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
- 참여자 만족도 및 지속 활동 의지 높음, 향후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활약 기대







### 사업담당자 활동 소감

이번에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으로 이주여성 리더발굴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업담당자로서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작년부터 회계를 담당했기 때문에 올해는 자신감이 좀 더 생겼습니다. 그림책 테라피스트 양성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희는 특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여성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큰 감동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이주여성들이 자신감을 얻고, 사회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육과 활동 하나하나가 참여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도 너무 뿌듯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있는 현장에서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 주어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에 한국여성재단에서 이주여성 활동가를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여성 활동가를 만나서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각자에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은정  
베트남



최옥화  
중국



### 사업담당자 활동 소감

이 프로그램은 이주여성으로서의 내면 치유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림책 속 이야기와 그림은 마치 거울처럼 아픔을 비추어 주었고, “혼자가 아님”을 깨달으며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심리학 이론과 상담 기법을 통해 정서 조절과 공감적 소통을 익혀 가족 관계 회복과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였으며, 이주여성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깨달음에서 사회적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치유 받은 만큼 다른 이를 도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참여자들을 치료사에서 활동가로 변화시켰습니다.

교육 수료 후 일부 참여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중언어 그림책 테라피스트로 활동하며 소득을 창출하기 시작했고, 이주여성의 경험과 언어·문화적 다름은 약점이 아닌 강점이고 창의성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림책 한 권이 마음과 사회를 바꾼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림책은 마음을 읽는 눈이 되고 이중언어는 세상을 연결하는 손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다문화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작지만 확실한 씨앗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이주여성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한국여성재단”과 “새한누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04.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의 인권 증진, 피부색,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며, 이주민의 인권 신장을 위한 상담, 교육, 한국생활적응 지원, 통번역 지원, 이주민 인권 관련 연구, 조사, 정책개발, 자료 발간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주여성 성평등 교육 강사 양성

#### 사업목표

이주여성 리더의 젠더 감수성과 성평등 인식을 증진하고 이주민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성평등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강사로 양성



#### 사업내용

- 부산 지역 이주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성평등·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행할 강사 양성 기초 및 심화과정 운영
- 성평등, 인권, 젠더 감수성 중심의 이론 교육 및 실습 중심 커리큘럼 구성
- 교육 수료자들이 직접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강의 시연 및 피드백 과정을 통해 현장 강의 역량 강화
-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이젠센터, 부산시 인권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기반 및 네트워크 확장



#### 사업활동가

기수하(중국)

#### 사업대상

이주여성 강사 20명, 참가자 447명  
총 467명



#### 사업성과

- 이주여성 강사 11명 기초과정 수료, 6명 심화과정 수료 및 강의 시연 진행, 지역사회 젠더교육 기반 마련
- 참여자 467명(이주민·선주민 포함) 참여로 성평등 인식 확대 및 교육 효과 확산
- 강의안 개발 및 강의 실습을 통해 이주여성의 실질적인 강의 역량과 자신감 향상
- 이주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자존감 고양,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
- 모국어 강의 가능한 이주여성 강사 발굴의 첫 사례, 지속가능한 이주민 대상 교육모델 기반 마련







## 사업담당자 활동 소감

이번 이주여성 성평등 강사 양성 사업은 기타 기관에서 하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보다 이주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의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니다.

처음에 성평등이라는 주제가 낯설고 너무 광범위하여 짧은 기간 내 강사 양성이 가능할지 우려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참여자들이 각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다양한 사회적인 경험 배경을 가진 참여자들이 '성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 아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키워가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참여자들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현장을 염두에 두고 커리큘럼을 직접 구성하고 교안을 만드는 등 실천적인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강사 인력풀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교육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과 기회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실무자로서도 많은 배움과 감동을 얻었고, 이러한 경험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수하  
중국



## 교육참여자 활동 소감

이번 강사 양성 교육에 참가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마주하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제도적 차별 등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주여성들이 성평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배우며 전해 가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교육을 받으며 시야를 넓히는 계기를 가질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주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차이를 넘어서 함께 생각해서 배우고 서로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님 강의를 듣고 참가자들과 함께 배운 것과 자기가 강의 자료를 작성해서 강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강사를 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주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이주여성 성평등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성평등에 대해 인식이 더 넓게 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자료 제작, 전달 방법 등을 더 훈련하면서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과의 소통을 통해 함께 성평등에 대해 생각하는 강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쿠츠카게 카오리  
일본





## 05. 사단법인 함께하는 세상

적응, 문화이해, 노동문제 등에 대한 지원과 이주민·선주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시민의 인권 의식 제고에 기여하여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함께하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2020년 1월 사단법인 함께하는 세상을 설립하였습니다.

### 양산이주여성노동인권활동가 - 임파워먼트, 아자!

#### 사업목표

양산이주여성노동인권활동가 임파워먼트 리더십 강화를 통해 공존과 확대의 이주 모델리티 환경 조성



#### 사업내용

- 이주여성 노동인권활동가 12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강화 교육 및 연대 프로그램 운영
- 사회현상 연구, 퍼실리테이션, 인생그래프 그리기 등 자기 이해와 활동 역량 중심의 리더십 교육 4회 진행
- 1박 2일 리더십 캠프 및 독서모임(갯잎 투쟁기)을 통해 섬과 공감, 활동가 간 소통의 장 마련
- 6개국 이주여성 27명을 대상으로 노동·안전 실태조사 인터뷰 및 분석 연구 수행
- 조사 결과 공유 및 노동인권 문제의 공론화를 위한 포럼 개최



#### 사업활동가

리샤오나(중국)

#### 사업대상

이주여성 리더 12명, 설문참가자 27명,  
이주민 및 선주민 135명  
총 174명



#### 사업성과

- 이주여성 12명 활동가로 참여, 리더십 역량 강화 및 주체적 문제 인식 확산
- 교육 및 캠프를 통해 다각적 시각과 자기효능감 향상, 활동가로서의 자부심 고양
-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노동·인권 문제를 가시화, 정책적 논의 기반 마련
- 포럼 개최를 통해 이주여성 노동인권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확산 및 연대 기반 조성
- 향후 이주여성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실질적 활동 동력 확보







## 사업담당자 활동 소감

저는 '이주민당사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이주민활동가'로 이주민노동인권 분야에서 활동한지 벌써 8년차입니다. 저희 단체는 97년도에 만들어진 시민단체이며 올해는 28살이 되었습니다. 이주민의 인권 문제는 이주민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한다는 단체의 신념과 같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주민들은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왜 계속 주변에 위치하며, 내부에 있는 외부자가 되었을까? 늘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사회는 겉으로 봤을 때 이주민에게 호혜적인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참으로 사람을 힘들게 만들거만 합니다. 결혼이주민의 종속적 요구부터 이주노동자의 무조건적 순응 강요, 미등록 이주민 대상으로 진행된 참혹한 단속까지 이주민한테 우호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주', '여성', '노동자'는 어떻게 됩니까? 상상을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차적 정체성으로 이주여성노동자들을 더욱 외부인, 외부적 위치에 던져지기 마련입니다. 가야트리 스피박의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주변에 놓여 있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타자'가 아닌 스스로 소리를 내어 '나의 언어'로 화자가 되어 말을 해야 합니다. 이번 '양산이주여성노동인권활동가 임파워먼트-아자!'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주여성노동 인권활동가의 활동으로 이주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실태조사의 방식으로 문서화하고 포럼 개최를 통해 문제의식을 사회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기존 활동가들은 활동 동력을 얻고, 이주여성노동 자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것에 감동을 받고 삶의 원동력과 노동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무담당자로서 사업을 큰 문제 없이 마무리할 수가 있어서 일단 마음이 편하지만 이번 프로젝트 에는 기존의 활동가의 활동과 함께 신규 활동가 5명이 같이 합류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선배 활동가의 활동에 감동하여, 이에 활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주민당 사자 활동가의 활동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공감 해주고 함께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 같이 행 동을 하겠다는 의지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저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받는 것 같 습니다. 함께 연대의 손을 내밀어 주셨기에 저는 힘든 시간을 견디고 마음을 치유하고 활동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화', '피점화' 여성들의 활동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고 좋은 영향 력으로 더욱 멋진 활동가들의 활동을 기대하면서 "양산이주여성활동가들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멋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리샤오나  
중국





한국여성재단은 딸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1999년 12월,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해왔습니다.  
나이가 돌봄공동체와 나눔문화가 바탕이 된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을 위한 민간공익재단으로서,  
'딸들에게 희망을' 만들기 위한 한국여성재단의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 성차별 제도와 문화의 변화

성차별 제도와 문화의 변화를 통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

- 성평등사회조성사업
- 수시지원사업
- 여성운동 생태계조성사업 Brave Changes
- 젠더폭력 대응활동 지원사업

### 다양성 존중과 돌봄사회 지원

성별, 계층, 인종, 세대 간 다양성을 존중하고 돌봄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는 사업을 지원

- 양육미혼모지원사업 With Mom Project
- 이주여성 리더발굴 지원사업
-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
- 해외 여성청소년 교육 지원사업
- 싱글맘 나다움 PLUS+ 지원사업



### 여성인권보장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여성들의 자립과 지지 체계 구축을 지원

- 봄빛장학사업
- 여성건강지원사업
-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 힘내라 딸들아!

### 여성임파워먼트

여성NGO 활동가와 취약계층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한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지원

- 유한킴벌리 여성NGO 장학사업
- 여성공익단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 자립준비 여성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We are Future Makers
- 여성 소상공인 경제적자립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V
- Write Your Future
- 여성 사진·영상예술인 지원사업







(04001)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  
T. 02-336-6364 F. 02-336-6459  
E. [womenfund@womenfund.or.kr](mailto:womenfund@womenfund.or.kr) H. [www.womenfund.or.kr](http://www.womenfund.or.kr)